

말라기 강해 (2)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백성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이방인 중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십니다

말 1:6-14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다양한 선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선물이 서로의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과 부부의 사랑에서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만 선물을 잘못 주면 관계가 더 나빠집니다. 형식적으로 선물을 했다가 관계가 더 악화되거나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견고한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잠 18:19). 우리는 말라기 1장 후반부에서 그릇된 선물로 관계가 더 악화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가시는 예를 봅니다.

오늘 읽은 말라기 1장 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리고, 저는 것, 병든 것, 흠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을 페르시아 총독의 이름보다도 더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왜 나의 이름을 멸시하느냐?” 하고 책망하여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면서 뻔뻔스럽게 말대답할 정도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고 대답하실 정도였습니다.

대화가 이 정도로 오고가면 이제 그 관계는 다 끝난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하실까요? 그들이 완전히 행복할 때까지 밀어붙이실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알려 주시면서 관계를 다시 회복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고(1:11), 그분의 이름이 열방 중에서 경외함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1:14).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와 이름을 멸시하였으나(1:6)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압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호와와 이름이 만민 중에서 높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반복하여 선언하심으로써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십니다.

‘여호와와 이름’을 중심으로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읽을 수 있습니다.

1. 여호와와 이름을 멸시한다고 책망하심 (1:6)
2. 제사장의 부정한 제물과 여호와와 위대한 이름 (1:7-11)
3. 백성의 부정한 제물과 여호와와 위대한 이름 (1:12-14)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백성이 모두 여호와와 이름을 멸시하고 있으나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위대한 이름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와 이름을 바르게 부르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님의 위대한 이름을 알려 주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1. 여호와와 이름을 멸시한다고 책망하심 (1:6)

6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법이다.

내가 아버지라면,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인이라면,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에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런데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여호와께서는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종의 관계를 들어서 말을 시작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일은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일이므로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말로 둘째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와 주인이라는 말이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그들을 장자로 삼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고(출 4:22-23; 신 8:5; 호 11:1 등), 또한 이스라엘을 바로의 종 된 데서 구원하시면서 그들의 ‘주’가 되셨습니다. 애굽 땅 바로의 종 되었던 데에서 구원해 주시면서 그들의 ‘주인’으로 선언하셨습니다. 바로를 주인으로 섬길 때에는 죽은 목숨이었지만 여호와를 주인으로 섬길 때에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주인이라는 말에는 출애굽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곧 그들의 아버지와 주인이 되신 분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경외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¹⁾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버지라면” “내가 주인이라면”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에게 “내가 네 아버지라면”이라고 말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 주님의 큰 실망이 조금이라도 다가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고 부르면서 절규하듯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는 뻔뻔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출애굽의 구원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아버지와 주인으로서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부정한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데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말 1:6, 7, 12). 그렇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멸시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도 뻔뻔스럽게 대꾸하는 그 제사장들에게 여호와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2. 제사장의 부정한 제물과 여호와의 위대한 이름 (1:7-10)

1) 제물과 주님을 구분하는 주장 (1:7)

7 너희는 나의 제단에 부정한 빵을 바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부정하게 하였습니까?” 하고 말한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단이 멸시될 수 있다” 하고 말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부정한 떡’은 부정한 제물을 모두 포괄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나의 제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곳에서 부정한 제물을 바칩니다. 큰 잘못을 범하고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말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들과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부정하게 하지 않았다” 하고 말한 것도,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은 멸시될 수 있다” 하고 말한 것도 인용하십니다. 그들이 ‘주님’과 ‘제단’을 구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부정한 제물을 드려서 주님의 제단을 멸시하면서도 주님은 부정하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교묘하게 구분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 제사장이 드리는 흠 있는 제물 (1:8-10)

8 너희는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악하지 않다 하느냐?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을 드리면서도 악하지 않다 하느냐?
그것을 너의 총독에게 가져가 보아라.
그가 너를 기뻐하거나 너에게 얼굴을 들게 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9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간청하여서

1) ‘두려움’ 혹은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다(신 10:12).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경외심이 나타난다.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제물을 나누거나 십일조를 나눌 때에 그들 사이에는 기쁨이 있었다(신 14:23, 26, 29).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리는 제물로도 나타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서도 나타났던 것이다.

그분이 공흠을 베푸시도록 하여라.
 너희 손으로 그러한 일을 하였는데
 그분이 너희 중 누구의 얼굴을 들게 하시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10 너희 중에서 누가 문을 닫아
 나의 제단에서 헛되이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를 좋아하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손으로 드리는 제물을 나는 기뻐하지 않겠다.

교묘한 논리로 제물과 주님을 구분하는 그들의 꾀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는 다섯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흠이 있는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이것은 모세 율법에서 명백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신 15:21. 참조, 레 22:20-25).

둘째, 페르시아의 총독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해 내십니다. 그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거룩한 하나님을 보이는 총독보다도 더 가볍게 여겼습니다. 페르시아의 총독이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여 좋은 것을 바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높이 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그렇게 낮추는 자들의 수준까지 내려와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내십니다.

셋째,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살 길도 보여 주십니다. 주님께 간청하라고 합니다. 주님과 제물을 교묘하게 구분하면서 주님을 멸시하는 그들에게 주님께 간청하여 그분의 공흠을 얻도록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들에게 제사의 핵심인 주님의 공흠하심을 의지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흠을 간청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의 잘못도 지적하십니다. 총독에게 좋지 않은 선물을 바치면 총독이 그를 기뻐하지도 않고 얼굴을 들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바치는 그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도 호의를 베풀지 않겠다고 엄히 말씀하십니다.

넷째,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제물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성전의 문을 닫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그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지만, 매일 부정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견딜 수 없으나 성전 문을 폐쇄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는 여호와의 거룩한 분노를 깨닫고서 성전 문을 닫을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성전 문을 닫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예언자의 환상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것은 곧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리켰습니다. 여호와와 이름을 멸시하면서 제사하는 것은 것처럼 심각한 죄이지만 그들 중에는 이 문제의 심각함을 그렇게 깨닫는 자가 없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아서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자기들이 드리는 제물을 교묘히 구분하여 말하였는데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들이 드리는 제물도 흠향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처럼, 그들도 받지 않고 그들의 제물도 거절하겠다고 밝히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제물을 드리면서도 주님의 이름은 멸시하지 않았다고 강변하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는 그들도,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물도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처럼, 그들도 그들의 제물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앞에는 무서운 심판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것입니다.

3) 이방에서 크게 될 여호와의 이름 (1:11)

11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나의 이름은 열방 중에서 위대하다.

모든 곳에서 **나의 이름**으로
 분향하며 정결한 제물이 드려질 것이다.
 이는 **나의 이름**이 열방 중에서 **위대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와 제물을 구분하면서 교묘한 논리로 자기들의 죄를 가리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는 다섯 가지로 그들의 그릇된 점을 지적해 내신 후에 여호와와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한 절에서 세 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름이 위대하다’ 는 말씀을 두 번 반복하고 모든 곳에서 ‘나의 이름으로 분향하며 정결한 제물이 드려질 것’ 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모든 곳에서 여호와와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인데 그것은 정결한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알려 주십니다.

여호와와 이름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모든 곳에서 높임을 받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곳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을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리로 초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민족 사명이지만, 그들은 경제적 이익 때문에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바쳤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가장 고귀한 사명을 망각하게 된 것입니다. 눈먼 것과 병든 것을 바치는 그들은 그들이 바치는 제물처럼 눈멀고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온 세상에서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 주십니다.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알고 있는 자들이 정결케 되어서 정결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경영이 선민으로 자처하는 이스라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여호와와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이 새롭게 되어서 정결한 제물을 드리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라기의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다른 형식으로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 4:23)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신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성신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롭게 되어 자기 자신을 신령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롬 12:1-2).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신약의 교회가 제사장 나라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도 그중의 하나로 주님께 정결한 제물을 드리면서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벧전 2:8-9; 출 19:5-6).

3. 백성의 부정한 제물과 여호와와 위대한 이름 (1:12-14)

1) 백성의 부정한 제물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으심

- 12 그러나 ‘주님의 상은 부정하다.
 그 위의 열매와 음식은 멸시될 수 있다’ 하고 말함으로써
 너희는 **나의 이름**을 부정하게 한다.
- 13 너희는 또 ‘이것은 참으로 귀찮은 일이다’ 하고 말하고서
 코웃음을 친다.
 만군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흠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오면서
 제물이라고 가져왔다.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 14 자기 짐승 가운데 수컷이 있으나
 주님께는 흠이 있는 것으로 서원하고 바치며 속이려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제사장들의 교묘한 말과 그릇된 행위’ 를 지적하신 여호와께서는 이제 ‘백성의 잘못’ 도 지적하십니다.

12-14절에서는 서원하였으나 흠이 있는 제물을 바치는 자들의 잘못을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와 이름이 정결한 제물을 드리는 이방인 중에서는 높임을 받지만, 나라의 본 백성은 여호와와 상을 멸시하고 부정하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물과 여호와와 이름을 구분하면서 조금 삼가는 면이 있었으나 백성의 말은 더 직설적입니다.

백성의 태도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말에서 그들의 태도가 잘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것은 참으로 귀찮은 일이다” 하면서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정결한 제물을 골라서 드리는 것은 귀찮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말하는 태도에서 그들의 생각이 잘 드러납니다. 그들은 코웃음을 치면서 조롱의 말을 합니다. 셋째, 행동에서 그들의 태도가 표시됩니다. 흠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이라고 가져오는 행동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현저히 나타납니다. 흠친 것은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표시합니다. 저는 것, 병든 것은 먹거나 팔 수 없는 것들인데, 그러한 것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가져온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행하는 제사입니다. 자기의 때 가운데 서원 제물로 드릴 흠 없는 수컷이 있는데도(참조 레 22:21-22) 흠이 있는 수컷으로 서원하거나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것은 속이는 행위라고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속이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심판을 선언하였습니다.

백성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매우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습니다. 제사장뿐 아니라 백성도 모두 한통속이 되어 여호와와 이름을 경멸하고 여호와께서 도무지 받으실 수 없는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여호와께서는 다시금 여호와와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2) 열방 중에서 높임을 받는 여호와와 이름 (1:14하)

실로 나는 **위대한** 임금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이름은 열방 중에서 경외함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바치는 제물처럼 눈멀고 병들고 저는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열방 중에서 경외함을 받으실 여호와와 이름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완고하고 부정한 중에 있으나 여호와와 이름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나라 중에서 경외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위대하다고 선전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이 세상에서 높고 위대한 이름은 오직 여호와라고 선언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위대하신 이름을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유일한 답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선언하고 열방 중에서 행하실 크신 일을 보여 주십니다.

4. 이방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시기에 하시는 여호와와 지혜

말라기서는 여호와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우다가 태어났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얻으려고 했다가 라반에게 더 큰 고난을 겪었던 그러한 야곱인데 여호와께서는 그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1장 뒷부분에서도 흠이 있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면서 속이려고 하는 자에게 높으신 이름을 선언하시는 것은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뿐 아니라 말라기의 관점에서 보아도 야곱과 그의 자손의 모습에서는 바뀐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완고한 자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려는 성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성향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으나 그들의 태도에서는 바뀐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징계를 받아도 시정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다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려는 우리들에

게 ‘여호와와 위대한 이름’을 선언해 주십니다.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이방인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두 번 강조하여 말씀하시고(1:11), 여호와와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1:14). 우리가 자기를 성찰하면서 그릇된 것을 없애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새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에 압도될 때에만 우리가 변합니다. 여호와와 위대한 이름이 만국 중에서 높임을 받고 이방인도 정결케 되어 정결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방인 중에서 여호와와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것을 알려 주시는 것은 완고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함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함이니라” (롬 11:11) 하고 하나님의 경역을 찬송하였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서 이스라엘은 시기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는 이 구절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기심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믿게 하는 데에 이르게 하신다는 구절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진선진미하게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새로운 피조물을 지으실 때에 이스라엘의 시기심도 사용하지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여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혜를 봅니다.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그대로 사용하시고 약한 것도 한꺼번에 바꾸시지 않습니다. 완전한 변화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자기를 스스로 완전케 만들려는 마음을 버리고 홀로 높으신 여호와와 이름만을 찬송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물론 여호와를 바라고 나아가다는 것은 자기의 잘못이나 죄를 그냥 가볍게 본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방인을 정결케 하여 정결한 제물을 드리게 하신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하신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결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여호와와 이름을 위대하다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그분의 이름이 높다는 것을 찬송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시기심도 사용하여 주님께 나아오게 하시는 크신 지혜와 능력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큼을 자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넉넉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크신 이름은 우리의 생활에서도 그러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한 열매를 맺으려고 주님께서는 구속의 은혜도 망각하고 작은 경제적 이익 때문에 제사장 나라의 특권을 포기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여호와와 크신 이름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크신 이름을 알려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행하도록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응답송: 시편 51편 1-2, 6-7절